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모든 지역 교도소에서 독방 감금 감독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매일 4 시간 동안 감방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독방에 감금된 수감자들

독방 감금 연장 또는 필수 서비스 제한 결과를 초래한 모든 결정 또한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시설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교정위원회(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가 모든 지역 교도소에서 어떻게 독방 감금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공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규정](#) 및 관련 보고 지침은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수감자의 경우, 하루에 적어도 4 시간은 해당 감방에서 벗어나 있게 할 것을 교도소에 요구하며,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i) 한 달 이상 수감자를 독방에 감금하도록 내린 모든 결정, (ii) 18 세 미만의 수감자가 제한 주택에 거주되는 경우, (iii) 특정 서비스가 이 시설에 의해 제한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뉴욕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NYCLU)과의 역사적인 합의에 따라 주립 교도소에서 특수 주거 감방(Special Housing Unit, SHU)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미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보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교도소의 특수 감방 관리 방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들이 법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방 감금의 오용 및 남용에 대한 공개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새로운 기준은 모든 지역 교도소에서 절차상 매우 필요한 통일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을 통해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근절하고 주립 교도소에서 자리를 잡게 된 획기적인 개혁을 기반으로 뉴욕 전 지역의 모든 시설을 일관된 수준의 질적인 관리와 공정한 규정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교정위원회(Commission of Correction)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뉴욕주 상원이 승인한 3인의 위원회가 운영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 교정 시설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교정 시설 및 주립 교정 시설들을 평가하고 조사하며 감독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교정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구금 상태에서의 사망 사건을 조사합니다. 새로운 교정 시설 개발을 지원하며 해당 시설의 모든 공사 및 개보수를 승인합니다.

제안한 규정을 이 위원회가 승인했으므로, 이제 이 규정들은 대중의 의견 청취를 위해 주립 등록청(State Register)이 반드시 공표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규정들이 적용될 것입니다. 규정 및 관련 보고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

- 독방에 감금된 수감자는 교도소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안전, 보안, 시설의 양호한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서면 결정을 공표하지 않는 한, 매일 4 시간 동안 해당 감방에서 나오는 것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최고 행정 책임자는 제한 사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될 때까지 매주 그 결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임신한 수감자 또는 18 세 미만의 수감자가 징계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제한적인 감금에 처해질 때마다, 이 결정은 제한적 감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될 때까지 매주 최고 행정 책임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수감자 한 명이 30 일 넘게 독방에 수감될 경우, 매년 뉴욕주 교정위원회(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수감자가 18 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일 경우, 모든 기간의 제한적 감금 상황이 반드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 특정 필수 서비스가 특정 수감자에게 제한되거나 거부될 때마다 검토를 위해 뉴욕주 교정위원회(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에 24 시간 이내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추가적인 개혁을 진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해당 시설에서 취약한 수감자들이 수감되고 처리되는 방법에 대한 지역 교도소에 데이터 및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행정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교정위원회(Commission)의 Thomas Beilei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정 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인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직원, 대중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 또는 행정상의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의 이행은 규칙이 아니라 반드시 예외적으로 다루어져만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이 위원회는 지역 교도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들은 구금 중에 있는 많은 수감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무죄 추정 원칙을 유지하면서 필수 서비스를 받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교도소가 수감자를 존중하면서 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베라 사법 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의 Nicholas Turner 소장 겸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균형적으로 청년, 정신 질환자, 유색 인종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널리 활용되는 독방 감금 및 다른 종류의 분리 수감 방식의 종식은 구금 시설 및 교도소의 안전과 수감자들이 복귀할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 양쪽 모두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활용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교정 기관 및 뉴욕주 교정위원회(New York 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와 같은 뉴욕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규정들은 뉴욕이 2015년 12월에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과 함께 도달한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 성취된 성과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는 특수 주거 감방(Special Housing Unit)을 관리하는 방식에 관한 여러 해에 걸친 의미 있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2년 이내에 교정감독부는 특수 주거 감방(Special Housing cell)에 감금되는 수감자의 수를 24 퍼센트 줄이고 수감자의 평균 체류 기간도 16 퍼센트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취임한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형법 및 청소년법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주지사는 금년 초 형사 책임 연령을 18 세로 높이려는 노력 뿐만 아니라, 성공 운동의 일자리(Work for Success Initiative) 프로그램으로 18,000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석방 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Cuomo 주지사는 전 수감자들이 사회 복귀 시 직면하는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뉴욕주 최초의 지역사회 재진입 및 재통합 위원회(Council on Community Re-Entry and Reintegration)를 창설했습니다. 출범 이후 위원회는 주정부 기관에 “공정한 채용 기회(Fair Chance Hiring)”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유죄 판결만으로는 뉴욕주 주택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급하는 데 이르기까지 사회 복귀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